

-(으)ㄴ 테니까

내가 ~할 테니까... / ~일 테니까...

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, 즉 자신의 의지나 강한 추측을 근거로 이유를 댑니다.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자연스럽게 부락으로 이어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ㄴ 테니까	하다 → 할 테니까
받침 있음	-을 테니까	먹다 → 먹을 테니까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테니까
1인칭	의지	제가 할 테니까
3인칭	강한 추측	바쁘실 테니까
과거 추측	-았/었을 테니까	도착했을 테니까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ㄹ 받침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는 만들 테니까.

가 됩니다. 주어가 I이면 자신의 의지를 부락의 근거로 내세웁니다: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주어가 다른 사람이면 확신 있는 추측이 됩니다: 지금쯤 도착했을 테니까 전화해 보세요.

-(으)니까와 마찬가지로 뒤 절에 명령이나 제안이 올 수 있으며, 사실 그런 경우에 주로 씁니다.

이미 끝난 일을 추측할 때는 과거를 안에 넣습니다: -았/었을 테니까. 관련 표현인 -(으)ㄴ 텐데는 이유 대신 배경을 깔아 줍니다.

■ 예문

- 1 제가 저녁을 만들 테니까 좀 쉬세요.
- 2 제가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
- 3 지금쯤 도착했을 테니까 전화해 보세요.
- 4 길이 막힐 테니까 지하철로 가세요.
- 5 선생님은 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여쭙습니다.
- 6 제가 표를 살 테니까 자리를 맡아 주세요.

■ 비교

-(으)니까

-(으)니까는 이미 확인된 이유를, -(으)ㄴ 테니까는 앞으로의 이유, 즉 자신의 계획이나 예측을 나타냅니다.

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 (지금 비가 온다) /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 (곧 비가 올 것이다)

-(으)ㄴ 거니까

뜻이 비슷하며 이쪽이 더 편한 말투입니다. -(으)ㄴ 테니까는 조금 더 배려하는 느낌이 있어서 도움을 제안할 때 자주 씁니다.

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. / 제가 할 거니까 쉬어.

-(으)ㄴ 텐데

같은 테에 어미가 다릅니다. 텐데는 배경을 제시하고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으며, 테니까는 이유를 제시하고 부락으로 이어집니다.

바쁘실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. (그러니 나중에 만나자) /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? (바쁠 텐데 괜찮은지 묻는다)

■ 주의

✗ 제가 저녁을 만들을 테니까 쉬세요.

○ 제가 저녁을 만들 테니까 쉬세요.

ㄹ 받침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만들 거예요, 만들 수 있다처럼 씁니다.

✗ 지금쯤 도착할 테니까 전화해 보세요. — ‘이미 도착했을 것이다’라는 뜻으로 (×)

○ 지금쯤 도착했을 테니까 전화해 보세요.

이미 끝난 일을 추측할 때는 어미 안에 과거를 넣습니다.

✗ 그 사람이 갈 테니까 저도 갈게요.

○ 그 사람이 갈 테니까 저도 가려고요.

주어가 3인칭이면 이 어미는 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냅니다. 뒤 절은 그 사람 대신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으로 쓰세요.